

2024년 04월 24일(수)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전문)

위원장

지금부터 여수MBC 4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수MBC 우리 이호인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대표이사

총선 관련해서 지역방송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의대 문제, 의대 유치 문제가 현안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도해야 여전히 고민입니다. 동부지역을 단순히 대변해야만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저희가 나름의 솔루션까지도 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회의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한 달 동안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번에는 주요 부서별로 지난 회계 업무 설명과 다음 달 계획에 대해 먼저 이복현 콘텐츠센터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콘텐츠센터장

이번 달 4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5월 계획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셨던 의견들 반영 사항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4월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론회 및 개표방송을 차질 없이 수행을 했습니다. 토론방송과 개표방송을 유튜브 라이브까지 동시에 저희 로컬은 자정 시간대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도 특집 프로그램 계획 및 제작에 지금 착수하고 있는데요. 여수 섬 특집 관련해서 올해는 여수 삼산면 거문도 공연을 취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디오 특집으로 방문진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역 난임 보고 프로젝트'도 지금 계획구성을 해서 조만간 제작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사기념일 즈음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송 공동 캠페인이었던 '지역에 살아요.' 캠페인이 서울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편으로는 지난해 저희 순천 도서관 문화편에 이어서 아이들의 희망편을 제작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 아이돌 트로트 가수인 김태현 가수가 고흥 홍보대사인데요. 고흥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또래 친구들하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역에 사는 가치, 작은 학교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캠페인을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전국 16개 사에 동시에 지금 송출되고 있습니다.

'트로트 클라쓰' 시즌3도 계속 녹화 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약간 버스킹 버전으로 해서 소호 요트경기장에서 하루 4월 8일 녹화 진행했고요. 다음날인 9일 날에는 저희 공개홀에서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낙안읍성에서 퓨전 음악으로 해서 '얼씨구 클라쓰'라고 해서요. 지금 낙안읍성 복문 앞 앞에서 오후 1시, 3시 반 이렇게 두 차례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통 트로트 가수보다는 국악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국악과 퓨전 이런 음악을 선보이는

클래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유튜브 라이브로는 동시에 녹화와 함께 진행이 됩니다. 1시, 3시 반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산 MBC에서 지역 MBC 편성 책임자 회의가 있었구요.

그리고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MBC 양주 연수원에서 지역방송사 아날로그 콘텐츠의 디지털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콘텐츠센터와 기술센터 영상제작센터 담당직원이 포럼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계획입니다. 5월은 말씀드렸다시피 특집기획안들 좀 완성을 해서 특집을 본격적으로 제작 착수하고 좋은 작품 만들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청자가 만드는 티비'도 4월 말부터 11월까지 매회 1회 편성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품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저희가 약간 작품의 모니터를 통해서 방송에 가능한 작품들을 선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위원 여러분들도 지인 중에 영상 제작이 가능하거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추천을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작품을 이렇게 받아서 선정해서 편성하고 또 작품료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시청자 위원 여러분들 내지는 시청자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 부서에 반영 사항을 작성해 봤습니다. 보도센터에서는 보도 뉴스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콘텐츠센터에서는 저희가 매거진 프로그램으로 어바웃 우리 동네 전국 시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디오 프로그램 '라디오전망대'가 있는데요. 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라디오전망대'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난달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대유치 관련 그 아이터 들은 '라디오전망대'에서 YMCA 토론회가 매주 고정으로 금요일 날 있는데요. 코너를 통해서도 반영을 했고 기타 여러 코너에서 다수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수순천 대학가 물가 관련해서도 '라디오전망대' 민원 해결사를 통해서 아이터를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섬마을 식탁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볼 수 있게끔 추가 편성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3월부터 3월에 본방과 함께 앙코르를 추가로 편성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섯 차례에 걸쳐서 본방 및 앙코르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 토론회 불참 관련해 유권자 알 권리 훼손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이것도 3월 28일 라디오 전망대에서 토론회 불참 총선 후보자들이라는 아이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순천대 의대유치 필요성 및 당위성 우리 지역 여론 수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라디오전망대'에서 연속 아이터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이념 논쟁 아닌 역사적 진실을 위한 심층 기획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면서도 3월 29일 YMCA 토론회나 뉴스 브리핑 코너를 통해서 다뤘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의견이나 위원님들 여러 의견들 충실히 저희 프로그램과 아이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전남 동부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저는 섬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순천만 습지부터 시작 해서 와온 해변, 돌산대교 등등 아름다운 바다하고 잘 어울리는 자연환경이 결국은 섬인데 동해의 섬이 없는 그런 동해와 또 우리 남해 섬이 있는 우리 남해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동부 지역에 이런 우리 관광자원을 어떻게 이걸 보존하고 활용할 것이냐 체계적인 관리가 되려면 여수MBC가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보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자산이이 때문에.

보도센터장

보도센터 4월 업무보고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4월 10일 총선 관련해서 대표 방송을 시작해 투표 방송과 함께 출마자 공약 검증 본선 토론회 등 여러 가지 아이টে을 소화했고요.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 제 개장에 따라서 K-디즈니, 순천대 의대 유치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고요. 물가라든지 아니면 광양 매화 축제 첫 유료화의 반응, 그다음에 고흥 드론쇼, 그다음에 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올해 가뭄 관련 이슈 등 이런 문제들도 언급을 했습니다.

5월 달은 의대 유치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취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5월 29일부터 6월 2일간 5일간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됩니다. 이 내용도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겠습니다. 여수산단 업황 관련해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계속적으로 요 내용도 우리 지역 경제 뉴스로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축제가 5월 달에 여수 거북선 축제가 있고 또 고흥 우주 항공 축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지역의 축제인데 직전 축제와 달리 달라진 콘텐츠가 있는지 없는지 뭐 반응은 어떤지 이런 내용들, 여수 관광객이 작년에는 좀 감소하고 주춤하는 실태였는데 올해는 어떨지 이런 내용도 취재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했었던 거를 반영한 건데요. 보시면 저희들이 날짜하고 뉴스에서 어떻게 한 건지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순천대 의대 유치는 정치권 순천대 의대 유치의 강조 부분하고 순천대 의대 유치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고요. 총선에 관련 우선 총선 후보 공약 검증 그리고 유권자들 입장에서 좀 총선을 정리해 달라는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유권자들의 얘기도 좀 담았습니다. 여순사건 사건 진상규명 지연 지적기사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경영심의센터장

해마다 비중 있게 진행하는 섬진강 꽃길 마라톤이 작년에는 한 300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무려 4500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그동안에 계속 진행해 온 버스킹 사업을 계속 여수 MBC가 맡아서 낭만버스킹, 청춘버스킹 둘 다 여수 MBC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저희들 공연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뮤지컬인데요. 다음 달 14일부터 19일까지는 뮤지컬 썸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큰 제작 뮤지컬도 유치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보고받은 전반적인 방송 실적 및 계획 여러 분야 시 청취 경험을 토대로 위원 여러분들의 소감과 제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김대중 위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위원

반갑습니다. 결석을 해서 좀 죄송하고요. 총선이나 보도하시는 내용 보면서 그리고 제가 시청자 위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 감사의 말씀입니다. 요즘 뭐 산단이 다 아시다시피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제가 뭐 몇 가지 보면 여수시 행정절차 관련해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가 최근에 신규사업을 위해 울촌산단에 땅을 구매했는데 땅의 80%가 순천시 소속, 20% 정도가 광양시 소속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논의를 순천시청하고 많이 그동안 여수시하고 이렇게 대화하던 거랑 순천시하고 대화하던 거랑 이 걸을 비교해 보니까

야 순천이 선진국 같고, 여수가 중진국 내지는 후진국 같다고 느꼈습니다. 순천시 벤치마킹 좀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여수시 관계자에게 전했는데, 그 가진 자의 행복 이런 것들을 여수 씨가 좀 못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기업 유치가 빈약해서 작은 기업이 하나 건설하러 들어간다고 하니까 순천시장님께서 아직 뭐 공사도 안 한 현장을 보셔서 도와줄 게 없냐고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와서 지원할 게 뭐 있는지 여쭙보시고 이런 있는 상황이고요.

여수시는 기존 공장 안에 증설을 한다고 그랬더니, 모든 인허가 한 60여 가지에 대해서 건건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울산에 '샤인 프로젝트'라고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울산시가 원스톱으로 인허가 패스시켜 주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한번 이 우리 회사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점검이 몇 회 들어왔는지 카운팅을 한번 해 봤더니, 50 몇 회가 넘게 우리가 지금 1년이 52주인데 뭐 휴일쯤 빼고 이러면 뭐 많이 들어올 때는 1주일에 세 번씩 이렇게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부과를 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요즘 다른 이야긴데요. 최근에 여수의 집을 하나 마련해 볼까 해서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인 죽림지구 쪽을 지켜봤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죽림에 분양가가 1480만 원, 1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거 어떤 근거로 이런 가격이 책정되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떠오른 게 토지가격, 건축비, 자재가격 이런 건데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상한가를 정할까라는 궁금하고 지역별로는 여수시의 죽림지구는 어떻게 1500만 원이 됐을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보도센터장

방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분양가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으면 분양가 상황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경제자유구역하고 상관이 없으면 분양가 상한이 제대로 안 받아서 순위가 따로 없을 거고, 아마 시하고 관계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죽림이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것 같아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신대지구 같은 데는 아파트를 세워지면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경제자유청에서 허가를 해주죠.

박병희 위원

지금 제가 이제 의대 위치와 관련해서 쪽 해 보니까 그 전남도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전남도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하면 의대를 설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는 도에서 처음에는 통합의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대학 중에 선정하지 않고 두 대학을 같이 묶어서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를 통합시키고 거기서 의대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교육부로부터 반력을 받았습니다. 통합하려면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한테 의사타진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대학에 확인 없이 그냥 그렇게 제출해 우리 대학에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편인데 어쨌든 정부로부터 반력이 돼 가지고 어 그다음 단계로 그러면 전남도가 공모를 통해서 둘 중에 하나를 지명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국무총리는 또 의대 증원 정원 2000명도 발표할 때 순천 전남에도 의대 신설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잘 수렴해 오면 그걸 반영해서 2025년은 안 될 거고, 아마 2026년부터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발언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순천시장, 순천시 지역구 김문수 당선자, 그다음에 순천시의회 전병희 의장 그다음에 순천대 이병운 총장 이 네 분이 모여서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입장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고 어 직책 당사자인 순천대학교가 먼저 의사 표시해라 해서 순천대학교가 지난주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제 지역민들 중에서는 그래도 좋은 기회인데 공모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전남도가 입지 문제로 뭔가 결정을 여러 차례 해 왔는데 도청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지금 나주에 있는 혁신 도시도 그렇고요. 그중에는 동부권에 위치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제2청사. 예 제 2004만 동부권에 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동부권으로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는 다 동부권이 아닌 지역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도 순천대학교와 우리 지역은 이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왜 전남도가 공모절차를 굳이 밟으려고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전라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대학교는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교육부의 산하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 교육부가 정원 조정이라든지 신설 대학 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교육부가 공모를 할 때 우리가 직접 응모하면 되는 것인데 예전에는 없던 예선전을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순천대학교 입장이지요. 그리고 예선전을 치러 가지고 둘 중에 하나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본선에 가면 순천대학교가 여러 가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인구가 많고 의료수가 이쪽에 많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집중돼 있습니다. 전남 제조업의 70%가 생산되고 있고 더군다나 화학이라든지. 철강은 사고가 나면 폭발 사고가 나서 응급 분류가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고요.

위원장

박성주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주 위원

우선 의견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섬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제가 책자를 하나 봤는데 신안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안군 같은 경우는 이제 군소가 섬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섬마다 독립적인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각 손마다 주요 손목 그다음에 꽃 이런 것들을 예 어 식재를 해 가지고 섬마다 특성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이제 테마섬을 가지고 그다음에 화훼작물 이것들을 또 산업에 연계시켜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소득을 또 증대시켜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섬박람회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번 선거 방송을 아주 잘 봤는데요. 한 가지 조금 이제 지적을 하고 싶다면 그 전체 방송 중에 가장 하단에는 자막이 전국 후보자 투표율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남 동부지역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가운데 색깔 있는 부분은 구분이 가능한데 가운데는 두 개 다 하얀 바탕이라서 가독성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나머지는 정말 잘 봤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우리 조애숙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애숙

네 지난 3월 위원회 때 이슈가 됐던 총선 관련과 또 의견 위치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노출해 주시는 거 보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의대 유치 정말 관심 많죠 그런데 순천에서 순천대든 의회든 순천시든 이렇게 액션을 취해줘야지 우리 여수나 광양에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저기 여수에서 먼저 뭔가 이렇게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었구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의대 유치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도 심사단체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게 교육부 소관인데 왜 전라남도에서 분여를 하나? 그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긴데 생각인데 지사님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을 서부권으로 가져가고 싶은 그런 내신 손매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은 아까 교수님이 순천대에서 정해서 가는 방침이 맞다고 생각하구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박성주 위원님께서 섬박람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시민들이 늘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앞전에 벤치마킹을 간다고 일본하고 중국 이렇게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연 위원

전남도에서 벌써 의대 공모 관련 15억원짜리 용역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법적인 어떤 그런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이것을 과연 이 용역을 어떤 기업에 맡길 것이며 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 선정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의대 유치 계약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쪽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쪽에 치우치게 뭔가 되는 거에 대한 제어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쪽에서는 내용 자체에도 법조위 절차를 다 검토한다고 되었는데 그것까지 들이밀고 나면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현재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 보면서 회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된 프로그램 이렇게 방영해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이렇게 시청자 의견이 필요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틀어 놓아주셔서 같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는 드리는 그래서 매번 회의 때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프로그램마다 해서 그것도 좀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아주 굉장히 잘된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영상을 받으면 너무너무 영상도 너무 좋고 이제 뭐 스토리 좋고 이렇게 보면서 순천대가 글로벌 대학 선정돼서 뭐 외국인 학생 2000명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유튜브 쇼츠나 아니면 원 프로그램 그대로든지 간에 해서 이거를 좀 영어자막, 더 나아가서는 혹시 더 되신다 그러면은 영어 나레이션 을 넣어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 학교에서 저희가 한 백몇십 개 연결된 대학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같이 홍보자료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유학생이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유학생이 이 지역에 온다는 건 단지 순천대학교 안에만 머무르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살기 좋고 사실 이거를 알면요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이런 줄 알았으면 서울권에 안 가고 순천에 올 걸 하고 항상 학생들이 많아요.

이렇게 좋은 자연과 발달된 도시 풍경을 보여 주면 사실 다른 나라의 수도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좀 저는 영어권으로 많이 번역이 돼서 좀 홍보가 되면 굉장히 외국인의 유치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

저는 여수, 순천, 광양 동부권에서 이렇게 굉장히 세 지역이 굉장히 특색이 있고 잘 이렇게 뭐 각 지역의 발전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뭐 그런 거 다 좋은데요.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전체를 합쳐도 사실은 서울의 어느 구 하나가 다 보다 작은 인제 이런 안에서 뭔가 이렇게 소수전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으로 같이 하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좀 바램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따로 이런 것보다는 여수 순서 방향의 색깔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한 생활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사업이나 프로그램도 이제 많이 나왔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외지에서 이쪽 지역에 만약에 정착을 한다고 했을 때 어 순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올해 어쨌든 저희 순천대에서 글로벌 대학에 선정이 돼 지산학연 이제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정말 디테일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지 않고 지금도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는 한데요. '지역에 살아요.' 여러 이렇게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꼭 프로그램 말씀드리는데 아니고 이게 결국 지역이 살려면 지산학연이 같이 상생하는 요런 모델과 그림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 이제 프로그램 속에서도 이렇게 살짝살짝 녹아나오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면 뭔가 기업체하고 학교와 뭐 기업체가 뭔가 이렇게 같이 상생하는구나 어떤 이런 그림들이 좀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지 저기는 뭐 나중에 퇴직해서 그냥 쉬고 노후를 보내는 뭔가 평안하고 완전 이런 지역의 어떤 이미지 뭐 어떤 그런 곳보다는 저는 오히려 뭔가 이렇게 같이 상승하는 도시구나. 역동적이고 젊은 도시구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음 아직은 저희가 이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뭔가 네트워킹 할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사람들이 방송에서 노출됐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것이 크니까 그런 프로그램 할 때도 그런 지산학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시면서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나민수 위원

아까 김대중 의원께서 산단 전반에 대한 그런 상황을 좀 말씀 좀 해 주셨는데 저희 회사에 비추어서 저번 달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게 지금 이제 3월까지 저희가 누적에서는 흑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3월달 한 달만 놓고 보면 흑자로 전환을 해서 조금 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도 뭐 한국경제 그런 기사가 좀 났는데요. 뭐 예전에 우리 19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했던 우리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진행을 했던 이런 부분이 지금 다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보면 대산지역은 롯데케미칼이, 여수 지역은 LG화학이 이렇게 뭐 NCC를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대라는 이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부 주도로 저는 검토가 됐다. 있구나 하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알려주시고 혹시 인제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접하시게 되면 이렇게 기사화해서 이렇게 좀 말씀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수 지역의 노동조합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 지역 대표적으로 플랜트 노동조합이 있고 그다음 화물연대가 있고 그다음에 각사별로 도급을 주고 있는 사내 하청 민주노동 산하

에 산의 하청 지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화물연대나 뭐 플랜트 건설노조나 이런 쪽을 좀 잠잠한 편인데 지난 4월 2일 날 여수 시청에서 사내 하청 노조가 기자회견을 해서 임금 복지 수준을 모기업의 80% 수준까지 올려주라는 기자회견을 좀 했습니다. 지금 산단에서 상당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직면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모기업도 지금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걱정을 하는 게 구조조정에 대한 고용 안정에 대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지금 크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사별로 다 마찬가지로겠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그런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에 저도 이제 제가 뭐 우연찮게 제가 여도 학원에 이사장직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를 하시면서 도 교육청에서 상당히 지금 예산 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좀 앓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립학교로서 수익형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약 48억 가량 있는데, 그중에 인제 뭐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셨던 1억 5000만 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교육감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게 수익형 기본재산이라는 게 우리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 그다음에 일반인 이런 부분에 다 오픈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여수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좀 인식하는 데 있어서 박람회들을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행사가 요즘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원만히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인수 위원

점심시간에 도시락 회의를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새롭기도 하고 또 같은 경우에는 참석이 기회가 좀 많아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데 노력해 주신 MBC 관계자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모두에 우리 김대중 위원이나 나민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수 MBC를 제외한 타 언론사 특히 규모가 작은 소규모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것 보다는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 부각해서 굉장히 그 것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는데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긍정적인 어떤 아젠다를 좀 많이 제시하는 것이 어떤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저희 직원들이 뭐 인사를 하고 오거나 뭐 결혼을 한다거나 물어보면 거의 한 90프로 이상이 다 집을 순천에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우리 직원이 저희 같은 경우에 13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회식을 하면 젊은 사람은 대부분 다 순천에서 살고 있다고 이제 회식도 주니어 그다음에 시니어 나눠가지고 시니어는 여수로 주니어는 여수로 순천으로 하계끔 해달라 여수에서 회식하면 순천사는 직원들한테는 대리비를 지원했다고 온갖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참 그런 점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수는 갈수록 이 인구가 참 특히 청년층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지금은 여수보다 순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동안 MBC에서도 이런 인구 유출 문제에서 여러 번 문제를 제기하고 대

안을 했는데 쯤 이 부분을 쯤 더 심각하게 보고 이런 인구 유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여수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까지 또 심각하게는 보진 않고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뭐 섬 방향이나 이런 쪽을 더 많이 이렇게 맞추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쯤 비중 이게 다뤄야 될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 위원

먼저 여수MBC에 감사합니다. 로컬 방송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언론이 다 그렇겠지 라고만 있다가 MBC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서 야 정말 MBCS구나 그래서 먼저 감사를 들으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기관은 홈페이지가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는 않지 않을까요 홈페이지가 좀 제대로 관리가 되었을 때 상징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시청자 위원 모집 공고가 지금도 계속 떠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바웃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3월 25일까지만 업로드 돼 있어 마치 그걸 보면 어바웃 우리 동네 없어진 프로그램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스는 정말 여수 MBC 뉴스 수준이 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과 내용을 잘 잡아내는구나 예를 들면 의대 문제를 가지고 이게 갈등이 부추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굉장히 수준 있게 분석을 해서 이 동부권과 서부권을 분석을 해서 인구분포 분석이라든지 의료의 현황 이런 분포라든지 이것을 그냥 비교 분석해서 보도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 있게 저는 왔어요. 그래서 어 왜 동부권에 의대 유치가 필요한가 말하지 않아도 분석된 보도만 봐도 아 이게 이쪽 지역에 의대 유치와 의과대학, 종합병원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준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여수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젊은 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수에 청소년 공공 수련원 하나가 없다 이런 뉴스는 대상에 맞는 보도들이 나오는 거 이것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게 동부 지역이면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이잖아요. 고흥까지도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보성은 뉴스가 없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성군은 뉴스감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래서 좀 보성도 이 동부권에 같은 공동체로서의 뉴스에 좀 노출이 되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 보면 라디오 전망대는 여수 MBC의 중심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박성언의 음악식당 이 프로그램 굉장히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특산 맛들을 잘 살려서 이렇게 보도하는 거 그다음에 저는 기획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섬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어영차 바다 이걸 보면서 그 속에 사람이 있고 삶터가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들은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사람이고 삶인데 그거를 잘 살리는 ‘어영차 바다야’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옛날에는 10년이 되어야 강산이 변한다. 했지만, 하룻밤 요즘에는 하룻밤 사이에 변한다. 할 정도로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서 다 어 수렴이 된다. 하지만 직접 문화를 경험하기에는 굉장히 이쪽 지역이 좀 낙후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고급화 여수 MBC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제가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어 아까도 뭐 섬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하는데 그 섬이 다 똑같은 섬이 아니라 진도 앞바다에 아니 뭘니까? 여수 앞바다의 섬 어디 앞바

다의 섬에 앞바다의 특성을 잘 살려줘야 저 섬에 꼭 가보고 싶다. 이 섬에 꼭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냥 섬이 바다에 떠 있는 그냥 섬으로만 표현되면 뭐 똑같은 섬이니까. 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섬마다 나의 특성을 살려서 보도가 좀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섬에 가면 어떤 것을 맛볼 수 있고 섬에 가면 어떤 역사를 볼 수 있고 섬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인제 요렇게 좀 살려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졌고요.

다음에 지금 전남은 굉장히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고령화 사회인데 특히 고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령화 사회인데 아이들의 희망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고령하고 연결해서 이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여수 MBC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남의 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이제 노인이라는 말보다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전남에서 삶을 사는데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정주 도시의 전나무로서의 어떤 콘텐츠 팬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전남은 왜 이렇게 멋질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좀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인제 선거가 끝났는데 당선인들이 죄송하지만 벌써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당선되면 그 날 부터 다 똑같은 똑같아진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는 장치를 할 것인가? 이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MBC에서 당선인들 한 명씩 한 명씩이 아니라 이쪽 지역의 당선인들을 모아서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을 좀 한번 열면 어떨까 그리고 지역민들이 바라는 당선인들에게 인제 국회에 가서 어떤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 중앙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위한 토론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뭐 여수 순천의 극한이 아니라 이왕이면 고흥 보성 방향까지도 좀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를 어쨌든 뭐 여수 MBC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 당선 이후에 지역민들과 이 당선인과의 좀 뭐라 그럴까요?

지역사회에 대한 현안에 대한 공감 소통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열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 해집니다. 다음에 인제 그 보니까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관에서 있는 프로그램을 여수 MBC에서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게 노인복지관 그러면 그냥 노인들 가서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인복지관에서 문화가 꽃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순 사건과 지역민 이거는 인제 우리 동부지역에서는 땀해야 땀 수 없는 역사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근데 인제 중앙위원회나 전남실무위원회에서 예산이 막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지역민의 아픔 이 지역에서 여순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수 MBC만큼 여순 사건을 기획 보도하는 거 그동안에 다 투표했던 것 정말 훌륭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좀 미리 준비를 해서 전라남부 실무위원회하고 어 예산 지원도 받으시고 해서 프로그램을 그래서 여수 사건과 지역민, 지역 공동체 그래서 이거는 이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로서의 기억을 좀 하나 준비해 주면 어떨까 이상입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보도센터장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보성은 저희 관할이 아니며 광주MBC 관할입니다.

정상경 위원

잠간의 브레이크 타임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정말로 열정이 많으시다 이런 생각을 들

였구요. 이런 시청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뭐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뭘 좀 어떤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지를 좀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 포항에서 왔는데요. 포항에서 오기 전에는 다른 지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포스코에 여러 사업장 한 4개, 5개 사업장을 인천 송대 3년 근무했고 그다음에 그 IT가 있는 판교에서 또 이 년을 근무하고요. 오기 전에는 이제 포항을 1년 근무하고 여기 다시 왔는데 그럼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많이 돌아가는데 우리 어제 제가 이제 그 광양식구가 됐습니다. 전입을 포항에서 전입을 해서 전남이 동부하고 서부로 이렇게 나뉘져 있다는 부분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여기 와서 아무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우리 전남 도민이 아니면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예예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거를 많이 비교를 하면서 우리 이 나라가 아직도 이런 부분이 좀 있구나 라는 부분이 좀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포항에 살다가 이제 2쪽에 와 보니까 여기 남도지 않습니까? 살기 좋습니다. 살기 좋습니다. 살기 좋고 그다음에 음식도 좋고 거주 여건도 좋고 집값도 포항보다 훨씬 싸고 물론 판교나 인천 서울보다 훨씬 싸죠 예 그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덜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정주를 어디서 해야 될 거냐 처갓집이 있는 포항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원래 고향이 서울 쪽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가 이제 고향이라고 생각을 여기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 근데 주위에 또 제 동기들도 이제 이렇게 쪽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가 마지막에 정착하기 참 좋은 것 같다 왜 어 먹을 거 좋지 그다음 식비 싸지 다음에 여러 가지 다시 좋지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병원만 좋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병원은 근데 병원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병원 시설은 무조건 이제 뭐 최소한 전남대병원은 가야지 되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정주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아까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시면 또 그런 기획기사나 이런 부분을 숏컷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로 많이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요즘에는 한 10분 넘어가면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숏컷을 해 가지고 그걸 많이 하면 이 지역이 참 살만한 그런 또 나중에 정조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정말로 이 포항은 이 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점이었지 않습니까? 옆에 한참 가야지 울릉도 하나 있는 거 근데 여기 이만한 섬이 수려하고 갯벌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살기 좋은 데가 사실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계속 살고 계셔서 잘 모르는데 저같이 이리저리 막 다녀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이게 서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가지고 좋고 나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도 하면이 어떤 문화와 전통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어떤 우리 여수 그다음에 순천 그다음에 광양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래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서예라든지 뭐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 또는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정착을 하고 뭐 할 수 있는 결국은 문화적인 콘텐츠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제 집사람 포항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떤 걸로 우리 집사람을 갖다가 이제 만족을 시켜줄 것인가? 문화적인 서예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찾아보고는 있는데, 마땅히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삭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이 지역이 잘 형성이 돼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참 투기가 되고요. 그래서 많은 좋은 여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정규 여건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잘 소개가 되셨던 부분이 있다면 좀 더해지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외지사람들에게도 여기에 정말로 매력적인 도시다라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들도 상당 부분이 다 순천으로 많이 가 고민입니다. 거기가 베드타운화가 되면서 교육도시로서의 그런 부분을 특화시켜 가지고 크게 산업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광양이나 여수 이런 산업도시 옆에 이런 교육도시 교육의 어떤 여건을 갖추느냐 사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거든요.

그 바로 옆에 계셨던 우리 박소정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여기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가지고 다음에는 제가 좀 눈높이를 높여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어두운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중소기업을 하고 있지만은 대외적으로 다니다 보게 되면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나 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업하기 편한 도시가 됐으면 그런 환경이었으면은 참 좋을 텐데 대외적으로 우리 내부는 둘째 문제고 대외적으로도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우리가 한 번 더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또 말씀 중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 갈등 결과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이걸 조화롭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거냐 하는 또 여러분들이 협조가 돼 줘야 되고 또 우리 유스 MBC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